

2024.01.15.(월) 증권사리포트

만든 날짜: 2024-01-15 오전 4:13

수정한 날짜: 2024-01-15 오전 4:19

2024.01.15.(월) 증권사리포트

키움증권

4Q23 Preview : 악재는 선반영 되었다

[\[출처\] IBK투자증권 우도형 애널리스트](#)

4분기 실적은 컨센서스 하회 전망

4분기 키움증권의 지배주주순이익은 -1,852억원으로 컨센서스 (-972억원) 및 기존 당사 추정치 (-1,532억원) 대비 적자 폭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기존에 반영된 영풍제지 미수금 비용 4,333억원 이외에 독일 및 런던의 해외부동산 관련 평가손실 등 600억원 수준의 비용이 추가로 반영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키움증권은 태영건설에 대한 익스포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태영건설 워크아웃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4분기 업황 부진, 업계 공통 요인

4분기 위탁매매 수수료수익은 일평균거래대금 감소로 인해 전분기 대비 30.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IB 및 기타 수수료 수익은 전 분기 대비 8.9%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Brokerage 관련 이자손익은 전분기 대비 23.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신용공여 잔액 감소 및 10월 반영된 예탁금이용료를 상승에 기인한다. 트레이딩 및 기타 손익은 금리 하락으로 인해 채권평가이익은 양호할 전망이나 영풍제지 미수금 관련 총당금 반영으로 부진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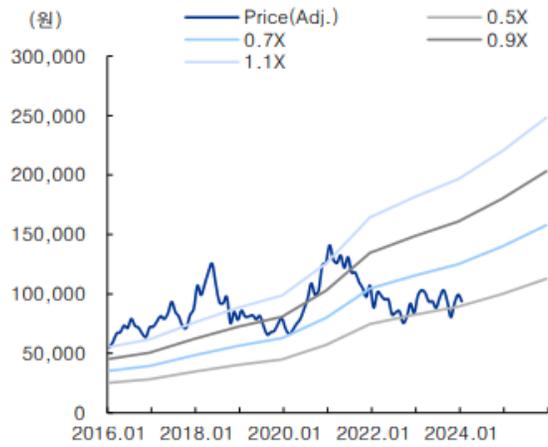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115,000원 유지, 최선호주 유지

키움증권에 대해 투자의견 매수 및 목표주가 115,000원을 유지한다. 이유는 1) 부동산PF 익스포저가 적어 2024년 지속해서 발생할 부동산PF 우려에 대해서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이며, 2)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통해 주가 하방은 견고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키움증권은 2023년 10월 주주환원율 30% 이상의 3개년 주주환원정책을 공시했으며 2023년 주주환원율에 기 발표한 자사주 매입 700억원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에따라 키움증권의 지난 3개년 평균 배당성향이 12% 수준인 점을 감안시 2024년에도 추가적인 자사주 매입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며 주가 상승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업종 최선호주를 유지한다.

(단위:십억원, 배, %)	2021	2022	2023E	2024E	2025E
순영업수익	1,835	1,269	1,272	1,576	1,639
영업이익	1,209	656	657	955	1,020
지배주주순이익	904	507	442	688	723
EPS	31,659	18,351	16,230	25,258	26,558
증감률	14.2	-42.0	-11.6	55.6	5.1
P/E	3.4	4.6	6.1	3.7	3.5
BVPS	149,422	164,805	178,987	199,377	215,113
P/B	0.72	0.51	0.56	0.47	0.43
ROA	2.2	1.1	0.9	1.4	1.4
ROE	25.4	11.5	9.4	13.3	12.8
배당수익률	3.3	3.6	3.0	4.6	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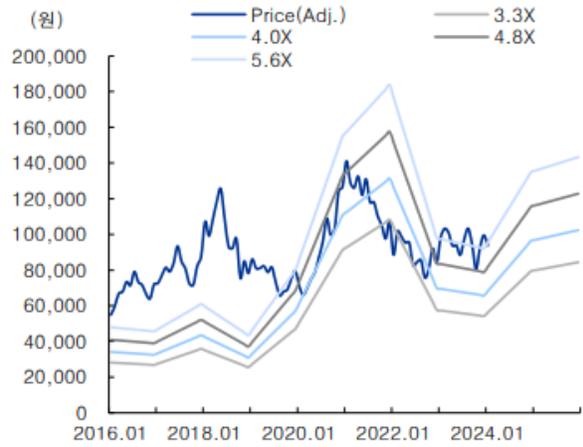
자료: Company data, IBK투자증권 예상

그림 1. PBR 밴드 추이



자료: Quantwise, IBK투자증권

그림 2. PER 밴드 추이



자료: Quantwise, IBK투자증권





카카오

변화와 기대에 대한 검증 필요

[출처] 키움증권 김진구 애널리스트

동사 목표주가 7.3만원으로 상향

동사 목표주가를 기존 6.3만원에서 7.3만원으로 상향한다. 동 목표주가 산출은 본사 및 기타 부문 적정가치 2.4조원, AI 내재가치 4.1조원, 커머스 사업부문 적정가치 7.4조원,페이 지분가치 2.9조원, 은행 지분가치 1.9조원, 모빌리티 지분가치 2.5조원, 엔터테인먼트 지분가치 6.5조원, Kakao Piccoma 지분가치 3.9조원 및 게임즈 지분가치 0.8조원을 합산했다. 밸류에이션 산출 기준시점을 24E로 변경하되 광고경기 회복과 투자관련 이익 등 영업외손익에 대한 긍정적 투영으로 본사 이익 개선을 추정치에 반영했고, 거래형 사업부문 이익 성장의 하향 안정화를 감안해 타겟 멀티플을 일부 하향 조정했다. 한편 모빌리티 기업가치 산정시 택시 관련 마진 스프레드 축소 등을 감안해 순이익 레벨을 기존대비 하향 적용했으며, 이에 우호적 멀티플을 적용함에도 기존 대비 기업가치 훼손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한 당사는 동사 24E 손익 레벨에 대한 추정치를 다소 우호적인 시각을 가지고 접근함으로써 긍정적인 수준이 형성되어 있으며, 실제 성과가 이에 미달할 경우 밸류에이션 부담에 놓일 수 있음을 투자자들은 염두할 필요가 존재한다.

AI 및 데이터 사업 검증이 요구

동사는 매니지먼트와 주요 관리 기제에 대한 변화 및 개선으로 시장 기대치가 상당한 상황으로 당사는 향후 이에 대한 면밀한 검증과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다. 특히 AI 사업은 동사의 특 기반 메인 플로우를 관통하는 큰 틀에서 전략이 공개될 필요성이 존재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 타임라인, 로드맵 및 액션플랜에 대한 심도있는 결과가 필요하다 할 수 있다. 또한 모빌리티 등 사회적 이슈가 존재하는 사업부문의 밸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AI, 데이터 및 솔루션 기반 부가가치 창출이 필수적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이는 플랫폼 관점에서 공급자와 수요자를 단순 매칭시키는 과정에서 테이크레이트를 수취하는 소극적 관점이 아닌 동 과정에서 데이터 흐름 등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대형 플랫폼 업체의 사명이자 도달해야 할 목표임을 사측도 최근 과정을 통해 명확히 인지했기를 기대한다. 당사는 향후 상기 사항에 대한 매니지먼트 실행 과정과 성과를 면밀히 점검하여 이에 대한 사안을 밸류에이션에 재조정할 계획임을 밝히는 바이다. 한편 동사 4Q23E 영업이익은 전분기대비 13% 증가한 1,580억원을 예상하며 이는 특비즈 매출액이 전분기대비 12% 증가하면서 인건비 및 마케팅비의 효율적 제어가 지속된 결과로 제시한다.

투자지표

(십억원, IFRS 연결)	2021	2022	2023F	2024F
매출액	6,136.7	7,106.8	8,226.0	9,756.9
영업이익	594.9	580.3	482.9	777.8
EBITDA	968.0	1,161.7	997.6	1,315.3
세전이익	2,293.7	1,304.4	493.9	1,007.6
순이익	1,646.2	1,062.6	303.5	740.4
지배주주지분순이익	1,392.2	1,352.9	319.7	728.5
EPS(원)	3,132	3,037	719	1,638
증감률(% YoY)	781.6	-3.0	-76.3	127.8
PER(배)	35.9	17.5	75.5	37.1
PBR(배)	5.02	2.37	2.29	2.36
EV/EBITDA(배)	52.1	21.3	26.8	22.2
영업이익률(%)	9.7	8.2	5.9	8.0
ROE(%)	17.1	13.5	3.1	6.6
순차입금비율(%)	-24.4	-17.9	-6.8	-8.8





카카오게임즈

체질 변화를 기대

[\[출처\] 키움증권 김진구 애널리스트](#)

동사 목표주가 3만원으로 상향

동사의 목표주가를 2.8만원에서 3만원으로 상향하고 투자의견 Outperform을 유지한다. 신규 목표주가는 24E 지배주주지분 894억원을 대상으로 라이온하트 스튜디오 별도 이익 기준 지배주주지분 환산 334억원과 이를 제외한 561억원으로 구분하였다. 각각의 이익 기준 타겟 PER은 30배를 동일하게 적용하되, 전자는 라이온하트스튜디오 IPO 전제로 이중 상장에 따른 할인율 20%를 추가적용했다. 타겟 멀티플은 동사의 주요 라인업인 아키에이지 2, Path of Exile 2 및 라이온하트스튜디오 주요 신작 잠재력을 감안한 밸류에이션 최대치를 적용한 것으로, 아키에이지 2는 PC 세그먼트 매출만 반영했으며, 잔여 신작 성과는 추정치에 미반영한 것에 대한 반대급부를 적용한 것이다. 한편 동사의 본질적 기업가치 레벨업을 위해서 트리플 A급 콘솔 게임 경쟁력이 필요한 바, 개발이 진행중에 있는 아키에이지 2의 게임성을 기준으로 글로벌 대중적 유저의 긍정 피드백이 선결될 필요가 있다. 글로벌 게임시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 축을 형성할 콘솔 세그먼트에서 경쟁력 큰 게임으로 유저 대상의 진솔한 커뮤니케이션을 축적해 간다면 이에 기반한 재무적 성과와 기업가치 업사이드 트리거가 창출될 수 있다는 소견이다. 또한 올해 6월 예정된 Path of Exile 2 CBT 관련 긍정적 유저 피드백이 형성된다면 동사 기업가치에 추가적인 업사이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한다.

동사 게임 추정치 및 실적 점검

동사의 메이저 게임인 오딘의 글로벌 일평균 매출액은 23E 8.5억원에서 24E 8.7억원으로 증가를 가정했고, 아키에이지 위 일평균 매출은 23E 5.0억원에서 24E 3.3억원으로 감소를 반영했으며, 아레스 일평균 매출은 23E 3.6억원에서 24E 5.4억원으로 증가를 반영했다. 이는 올해 게임별 지역 확장에 따른 증가를 반영한 것으로 해당 장르에서 경쟁강도 심화에 따른 감소 여지 등을 감안할 때 중립 이상 추정치로 정의내릴 수 있다. 가디سو더는 초기 분기 기준 2Q24E 일평균 매출 5.0억원과 24E 4.0억원을 추정 반영했으며, 롬은 온기 초기 분기 기준 2Q24E 일평균 매출 1.3억원과 24E 1.0억원을 추정치에 신규 반영했다. 아키에이지 2를 포함한 엑스엘게임즈 PC 플랫폼 매출 추정은 25E 997억원을 유지했다. 한편 동사 4Q23E 연결 영업이익은 129억원으로 전분기대비 43%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는 모바일게임 매출이 주요 라인업의 매출 감소로 전분기대비 8% 감소할 것으로 추정한 것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

투자지표

(십억원, IFRS 연결)	2021	2022	2023F	2024F
매출액	1,012.5	1,147.7	1,037.2	1,296.5
영업이익	111.9	175.8	73.3	122.1
EBITDA	155.2	269.1	156.9	203.0
세전이익	722.1	-194.7	49.7	133.1
순이익	520.2	-196.1	28.1	100.9
지배주주지분순이익	528.7	-233.6	19.0	89.4
EPS(원)	7,061	-2,929	230	1,084
증감률(% YoY)	412.0	적전	흑전	370.7
PER(배)	12.9	-15.2	112.3	25.1
PBR(배)	3.35	2.18	1.43	1.64
EV/EBITDA(배)	45.5	16.6	19.5	16.4
영업이익률(%)	11.1	15.3	7.1	9.4
ROE(%)	34.1	-12.4	1.2	6.2
순차입금비율(%)	-12.4	22.7	32.2	41.9





SK텔레콤
 1등 사업자 다운 면모
[\[출처\] 유안타증권 이승웅 애널리스트](#)

4Q23 Preview: 시장 컨센서스 상회 전망

4Q23 연결 영업수익은 4.5조원(+1.4% YoY), 영업이익은 3,033억원(+19.2% YoY, OPM 6.8%)으로 전망한다. 통신업종 내 유일하게 시장 컨센서스(4.5조원, 2,885억원)를 상회하는 영업이익 실현이 예상된다. 인건비 관련 일회성 비용 300억원이 반영됐지만 마케팅비, 감가상각비 등 전반적인 비용 증가가 제한되며 통신업종 내 가장 준수한 실적이 기대된다.

별도 영업수익은 3.2조원(+2.3% YoY), 영업이익은 2,299억원(+18.1% YoY, OPM 7.3%)으로 전망한다. 애플 아이폰15 출시로 5G 가입자수는 1,570만명(+55만명QoQ)으로 순증폭이 전분기대비 확대되며 5G 내 점유율 확대 기초를 이어갔다. IoT&2nd디바이스 회선수는 843만회선(+36만회선 QoQ)으로 모니터링 IoT회선에 대한 대량 공급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SK브로드밴드 영업수익은 1.1조원(+5.1% YoY), 영업이익은 734억원(+2.2% YoY)으로 전망한다. IPTV가입자는 7만명 순증하며 IPTV M/S(32.5% 추정) 확대 추세가 이어지고, 인터넷가입자는 6만명 순증하며 안정적 성장을 유지했다. 엔터프라이즈 매출액은 4,390억원(+12.0% YoY)로 두 자릿수 성장이 예상된다. 데이터센터 가동률의 상승과 클라우드 사업의 고성장에 기인한다.

투자의견 BUY, 목표주가 65,000원 유지, 업종 내 Top Pick

24년 연결 영업수익은 17.9조원(+2.1% YoY), 영업이익은 1.8조원(+4.6% YoY, OPM 10.3%)으로 전망한다. 5G가입자 증가에 따른 MNO 시장에서의 지위 강화가 예상되며 마케팅비 등 비용 효율화가 24년에도 이어질 것이다. 3,000억원 규모의 자사 주 매입이 진행 중으로 주가의 하방리스크가 제한적이다. 24년에도 자회사로부터 배당금 수익이 발생할 것이다. 추가적인 주주환원 가능성도 열어둔다. 동사에 대해 투자의견 BUY, 목표주가 65,000원, 업종 내 Top Pick을 유지한다

Quarterly earning Forecasts (십억원, %)

	4Q23E	전년동기대비	전분기대비	컨센서스	컨센서스대비
매출액	4,455	1.4	1.2	4,460	-0.1
영업이익	303	19.2	-39.1	288	5.2
세전계속사업이익	239	66.0	-40.2	218	9.7
지배순이익	178	-16.3	-40.2	145	23.1
영업이익률 (%)	6.8	+1.0 %pt	-4.5 %pt	6.5	+0.3 %pt
지배순이익률 (%)	4.0	-0.8 %pt	-2.8 %pt	3.2	+0.8 %p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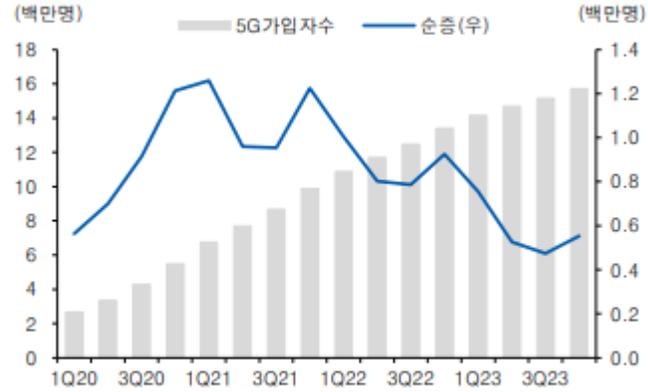
자료: 유안타증권

Forecasts and valuations (K-IFRS 연결) (십억원, 원, %, 배)

결산 (12월)	2021A	2022A	2023F	2024F
매출액	16,749	17,305	17,536	17,912
영업이익	1,387	1,612	1,759	1,840
지배순이익	2,408	912	1,096	1,181
PER	8.6	12.9	10.0	8.9
PBR	1.1	1.0	0.9	0.9
EV/EBITDA	5.7	4.1	3.7	3.5
ROE	13.6	8.0	9.6	1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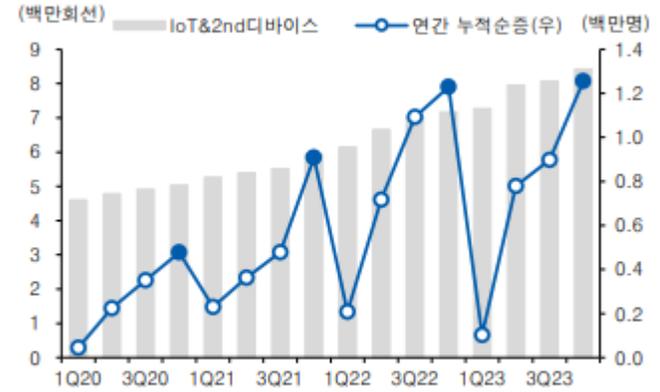
자료: 유안타증권

그림 1 SK 텔레콤 5G 가입자수 및 순증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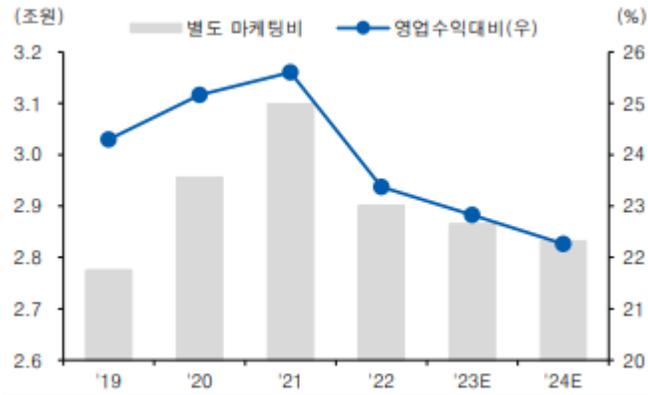
자료: SK 텔레콤,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 SK 텔레콤 IoT 및 2nd 디바이스 회선수 및 연간 누적순증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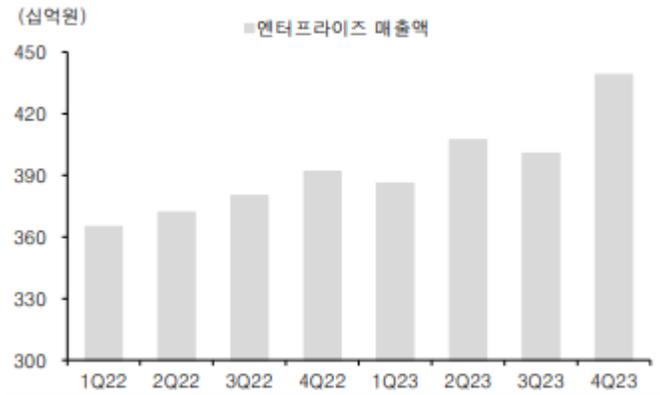
자료: SK 텔레콤,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3 SK 텔레콤 별도 마케팅비 추이



자료: SK 텔레콤,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4 SK 텔레콤 엔터프라이즈 매출액 추이



자료: SK 텔레콤,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필옵틱스

이제 다시 시작이야

[\[출처\] 유안타증권 권명준 애널리스트](#)

회사개요

필옵틱스는 2008.2월에 설립, 2017.6월 코스닥에 상장되었다. 디스플레이 관련 장비를 주력으로 2010년 Laser Glass Cutting, 2015년 LLO(Laser Lift Off) 장비 등을 개발했다. 사업다각화를 진행하였고, 2016년 이후 2차전지 관련 장비 개발(필에너지)로 영역을 확대했다. 반도체 장비로의 영역도 추진하고 있다. 차세대 반도체용 어드밴스드 패키징(Advanced Packaging) 장비를 개발하고 있다.

디스플레이 투자 확대에 따른 수혜 기대

국내외 디스플레이 기업들의 OLED 투자에 따른 매출 성장이 기대된다. 폴더블 제품용 중소형 OLED 관련 Laser Hole Cutting와 UTG Laser Cutting 등의 장비, IT기기(Tablet, Notebook) 제품용 중대형 OLED와 관련해서는 Laser Glass Cutting 등의 장비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다. 2023년 5월, 동사는 삼성디스플레이와 630억원 규모의 디스플레이 제조장비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종료일이 2025년 1월 31일이라는 점에서 연내(2024년) 매출 반영에 따른 실적 개선이 예상된다.

반도체 장비 기술 개발

반도체 장비로의 사업영역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차세대 반도체용 어드밴스드 패키징(Advanced Packaging) 관련 Glass 기판에 미세 Hole을 가공하는 TGV(Through Glass Via) 장비 개발을 완료했다. 고객사와 파일럿 테스트를 통해 제품 상용화 가능성이 연내 확인될 것으로 기대된다. 반도체 업계는 차세대 패키징용 소재로 Glass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당사는 고속 TGV 가공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적용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Forecasts and valuations (K-IFRS 연결)

(억원, 원, %, 배)

계산 (12월)	2019A	2020A	2021A	2022A
매출액	1,404	1,889	2,308	3,040
영업이익	-149	18	-105	181
지배순이익	-160	46	-43	18
PER	-8.9	50.5	-57.4	102.2
PBR	2.6	2.8	2.7	1.9
EV/EBITDA	-22.6	34.3	-81.4	12.7
ROE	-25.7	6.2	-4.6	1.8

자료: 유안타증권

[그림 4] 폴더블 적용 기기 확대 통한 OLED 성장 전망



자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OMDIA,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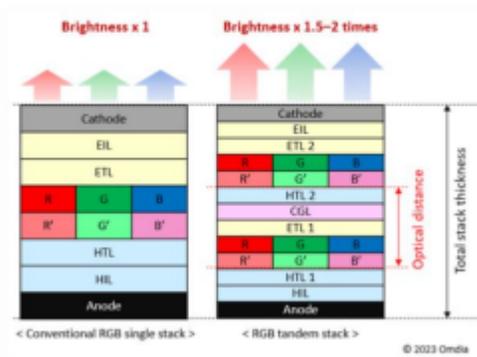
[그림 5] LG 전자 Gram Fold 노트북



▲ LG 그램 폴드, ©LG전자

자료: LG 전자,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6] Two Stack Tandem 구조



자료: OMDIA,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7] LCD 대비 OLED 강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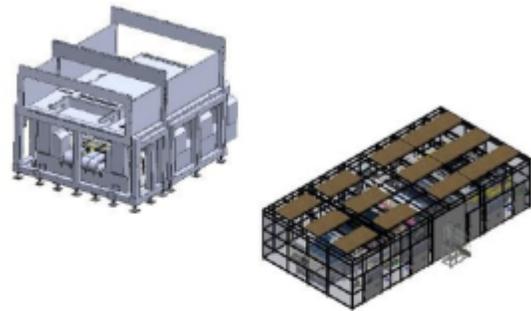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0] 중대형 OLED 장비: Laser Glass Cutt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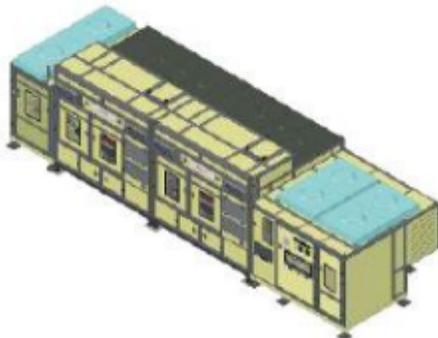
자료: 필옵틱스,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1] 중대형 OLED 장비: Laser Micro Processing



자료: 필옵틱스,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2] 중소형 OLED 장비: Laser Hole Cutting



자료: 필옵틱스,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3] 중소형 OLED 장비: UTG Laser Cutting



자료: 필옵틱스,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삼성전기

Android 시대의 최대 수혜주

[\[출처\] NH투자증권 이규하 애널리스트](#)

중국과 국내 고객사 비중 고려했을 때 밸류에이션 프리미엄 합당

중국과 국내 전략 고객사의 스마트폰 판매 호조세 가시성이 높아진 점을 고려했을 때 해당 매출 비중이 높은 동사 수혜 확대 전망. 투자의견 Buy를 유지하고 경쟁사 평균 대비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적용해 목표주가를 기존 17만원에서 19만원으로 상향

최근 북미 스마트폰 업체는 중국에서의 경쟁 심화, 주요 시장인 선진국에서의 수요 둔화로 판매량 줄어드는 반면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은 자국에서의 판매 회복과 이머징 시장 회복으로 판매 개선세 기록하고 있는 상황. 국내 고객사도 1월 17일 출시 예정인 플래그십 모델을 기점으로 회복 사이클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

경쟁사들 대비 중국과 국내 고객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동사의 수혜가 중장기 지속될 것으로 기대. 특히 안드로이드 업체들은 2024년부터 On-Device AI 기능을 갖춘 스마트폰 출시를 본격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어 MLCC 용량 증가와 해당 탑재량 증가가 기대된다는 점도 긍정적

업황과 실적, 1분기부터 빠르게 개선될 것

개선되고 있는 수요와는 달리 중국 하드웨어 부품 재고 증가율이 역사적 저점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도 향후 업황 개선 가능성 높은 이유. 당사는 춘절이 지난 2024년 2월 중순 이후 부품 주문 확대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실적도 4분기를 저점으로 1분기부터 전년비 증가세를 기록하며 성장할 것으로 전망. 최근 주가 상승에도 수요 및 실적 증가세에 힘입어 2024년 연간 주가 상승세 이어질 것으로 기대. 업종 내 Top-pick 관점 유지

	2022	2023E	2024F	2025F
매출액	9,425	8,795	9,799	10,572
증감률	-2.6	-6.7	11.4	7.9
영업이익	1,183	643	910	1,087
증감률	-20.4	-45.7	41.5	19.5
영업이익률	12.6	7.3	9.3	10.3
(지배지분)순이익	981	500	736	848
EPS	13,045	6,657	9,824	11,317
증감률	9.9	-49.0	47.6	15.2
PER	10.0	23.0	15.0	13.1
PBR	1.3	1.5	1.3	1.2
EV/EBITDA	4.8	7.4	6.1	5.4
ROE	13.8	6.4	8.8	9.4
부채비율	42.9	41.6	38.7	35.7
순차입금	-292	-201	-47	-75

단위: 십억원, %, 원, 배



와이지엔터테인먼트

신뢰의 부재

[\[출처\] NH투자증권 이화정 애널리스트](#)

2019년 수준으로 악화된 투자심리

목표주가 70,000원(기존 87,000원)으로 20% 하향. 반복적인 활동 지연으로 신뢰도 낮아진 가운데, 블랙핑크 재계약 내용에 대한 실망감까지 더해지며 투자심리 악화. 이에 Target PER을 24배(기존 30배)로 하향. 영업 및 영업외 리스크 겹치며 투자심리 악화되었던 2019년 12MF PER(27배)을 10% 할인한 값. 실적 추정치 변동은 미미. 블랙핑크 그룹 활동 계약 건재한 만큼 활동 가정 유지

개인 활동은 그룹 활동을 제한하지 않는 선에서 진행될 것. 동사가 블랙핑크 전원과 그룹 활동 전속계약을 맺었다는 것은, 멤버들 역시 그룹 활동 지속의 필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는 의미임을 잊지 말아야 함. 개인 활동의 경우에도 글로벌 광고, 음반 발매 등 일부 활동의 경우 동사와의 협업 가능성 여전히 유효함

블랙핑크 향후 활동 기대감이 배제된 주가

투자의견은 Buy 유지함. 현재 주가 시장 우려를 과도하게 반영, 블랙핑크 향후 활동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한 수준으로 하락. 오히려 베이비몬스터 및 트레저의 신보 흥행, 혹은 블랙핑크의 그룹 활동 재개가 가져올 업사이드만 남아있음

4Q23 Preview: 쉬어가는 구간

4분기 연결 매출액 1,210억원(-3% y-y), 영업이익 78억원(-50% y-y)으로 컨센서스 하회할 것. 트레저의 일본 아레나급 팬미팅(20회)을 제외 시 유의미한 실적 기여 활동이 없었던 탓. 베이비몬스터 및 제니 신곡 음원의 스트리밍 지표 긍정적이었으나, 음반 발매가 동반되지 않았던 만큼 실적 기여 제한적일 것

	2022	2023E	2024F	2025F
매출액	391.2	580.8	601.3	854.0
증감률	21.6	48.5	3.5	42.0
영업이익	42.6	94.3	88.5	131.9
증감률	68.4	121.4	-6.2	49.0
영업이익률	10.9	16.2	14.7	15.4
(지배지분)순이익	33.7	61.2	54.2	78.2
EPS	1,813	3,275	2,900	4,186
증감률	402.2	80.6	-11.5	44.3
PER	24.2	15.5	15.4	10.7
PBR	2.0	2.0	1.6	1.4
EV/EBITDA	15.5	9.0	8.3	5.4
ROE	8.6	14.0	11.0	14.0
부채비율	35.5	27.4	24.2	21.3
순차입금	-67.6	-100.5	-124.1	-213.7

단위: 십억원, %, 원, 배



